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33호

Jeff Pippenger

2026-01-21

수 삼십삼

일요일 법령 때, 십사만 사천인은 예언적으로 열한시의 일꾼들과 조우한다. 십사만 사천인은 이미 인침을 받았으며, 그때 그들은 큰 무리가 바벨론에서 나와 제칠일 안식일을 위하여 자신들과 함께 서도록 호소한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은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고, 그 후 심판은 이방인들, 곧 큰 무리—하나님의 다른 양 떼—에게로 옮겨진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두 무리를 지목하고, 다섯째 인에서 암흑시대의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교에 대하여 교황권을 심판하실 때까지 '얼마나 더' 남았는가를 묻는다. 그들은 교황권의 박해로 인한 두 번째 순교자 무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덤에서 쉬라는 지시를 받고, 흰 두루마기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머지않아 닥칠 일요일 법령 위기 속에서 일어날 두 번째 교황권에 의한 순교자 무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7장과 다섯째 인은 이 두 무리를 다루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하다. 서머나는 교황권에 의한 최후의 피의 대학살의 순교자들을, 빌라델비아는 십사만 사천인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삼시에 있으며, '옛새'(여섯 시간이 아니라)가 지난 후 그는 일요일 법령의 경계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는 제구시이다.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와 더불어 말하였다.

마태복음 17:1-3.

일요일 법령의 때에 십사만 사천인은 예언적으로 큰 무리와 조우한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십사만 사천인을 대표하고, 모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일요일 법령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신 것과 같이 자신의 영광의 왕국에 기름 부으시는 때이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가 제삼시부터 제구시까지의 여섯 시간과 관련하여 전개하고 있는 논리에 여전히 동참해 있다면, 이제 매우 특별한 하나의 예증을 볼 필요가 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삼시는 가이사라 마리티마의 제구시 오메가의 알파이다. 나는 여섯 시간이 아니라 여섯 날 후에 베드로가 변모산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또한 제구시에 해당하는 주일 법령에서 절정에 이르는 역사를 예증한다. 그 여섯 날의 기간은 여섯 시간의 기간과 상응하지만, 오직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로의 프랙탈로서만 그러하다. 매우 특별한 것은, 여섯 시간 기간의 역사 안에 그 역사의 프랙탈이 놓여 있는 이 현상이 오순절기를 고려할 때 정확히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오순절까지의 여섯 시간은 십자가에서 주후 34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의 프랙탈이며,

그때 성주간이 종결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다.

이제 교만과 시기가 빛을 향한 문을 닫아버렸다. 만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전해 온 소식이 신빙성을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대변자라고 주장해 온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었다. 이 학식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교도라 칭한 자들에게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목자들이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통하시려고 자신들을 지나치셨을 리 없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든 그 소식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드러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이 일들이 과연 그러한지 보려고 베들레헴에 가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대한 관심을 광신적 열광으로 여기도록 백성을 이끌었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구주에 대한 확고한 증오로 자라났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시는 동안,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에게 문을 닫고 있었다.

거룩한 한 이레의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로부터 삼 년 반 후에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였다. 십자가 후 삼 년 반이 지나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 기간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어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는 다니엘 12장 1절에 나타난 은혜 기간 종결의 상징이다.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문은 닫히고 이방인들을 위한 문이 열렸다.

그리스도께서 제구시에 죽으신 때로부터 스테반의 죽음과 베드로의 제구시 소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넬료와 스테반은 천이백육십 예언적 날들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다. 제구시의 죽음에서 제구시의 죽음까지가 천이백육십 예언적 날들의 기간이었다. 제구시의 죽음에서 오순절의 제구시에 이르는 것은 오십이 일의 기간 안에서 천이백육십 예언적 날들의 프랙탈을 나타낸다.

오순절기였던 그 프랙탈은 그 1,260일의 시작에 위치해 있으며, 그 날들의 끝에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언적으로 제삼시와 제구시에 동시에 위치한다. 두 가이사랴는 예언적 여섯 시간의 기간의 알파와 오메가를 대표한다. 그 두 가이사랴의 예언적 여섯 시간의 기간 안에서, 베드로는 옛새 동안 여행하여 변화산에 이른다. 그 산은 일요일 법령에서 절정에 이르는 인침을 대표하며, 거기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모든 산들 위로 높이 들려진다. 그 옛새는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섯 시간의 기간을 대표하며 그 기간 안에 있는 하나의 프랙탈인데, 이는 바로 그 동일한 거룩한 기간의 시작에서 오순절기가 하나의 프랙탈이었던 것과 같다.

시작 프랙탈은 오순절기에 연관된 봄 절기들의 성취였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에 이르는 종결 프랙탈 또한 거룩한 주간과 예언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변화산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세례 때에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또한 십자가 직전에도 그러하시게 될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주간의 시작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한 번은 세례 때, 다음은 변화산에서였고, 그리고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늘 속에서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그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1,260일의 오메가이다. 그의 세례와 십자가는 다니엘 9장의 신성한 한 이레의 구체적 이정표들이므로, 변화산 사건은 그 신성한 한 이레의

일부로 규정된다. 만일 처음과 마지막이 그 신성한 한 이레의 예언의 이정표들을 성취하였다면, 중간의 이정표 또한 예언적 필연성상 동일하게 성취되어야 한다.

세레는 첫째 천사, 변모산은 둘째, 십자가는 셋째이다. 변모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낳은 교회의 이정표로 지목하셨다. 그 적용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삼중 상징과 결부되어 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신 때가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의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변모였으며, 세 번째는 겿세마네였다. 첫 번째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활한 열두 살 된 처녀를 목격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그를 기쁘게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보라, 야이로라 하는 이름의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라.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하니, 이는 그에게 열두 살가량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뻥뻥이 몰려 그를 에워싸니라. 누가복음 8:40-42.

야이로라는 이름은 '깨우치는 자'와 '광휘롭고 영광스러움'을 의미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배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 차례 중 이것이 첫 번째였고, 야이로의 경우는 그 영광으로 땅을 밝히는 첫째 천사를 표상한다. 열두 살의 처녀는 십사만 사천으로 부활하게 될 처녀들을 표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의 만남 후에 그 처녀 딸의 집에 이르셨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어, 의원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니, 곧 그녀의 혈루가 그쳤다. 누가복음 8:43, 44.

열두 살 된 처녀가 먼저 언급되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언급된다. 그 여자는 그 처녀가 살아온 온 기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혈루증 있는 여자의 곁을 지나 처녀 딸에게 이르시려 하셨다. 그 여자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기별로 표상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처녀를 부활시켜 생명으로 일으키려 하셨고, 그 병든 여자, 곧 라오디게아의 여자는 여전히 잠시나마 신성을 접촉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는 마지막 세대를 상징하며,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의 처녀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병든 여자, 즉 라오디게아의 곁을 지나가고 계신다. 그 처녀가 부활할 때,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거나 혹은 지나쳐 버림을 당했을 것이다.

첫째 천사의 한 가지 특징은 두려움이며, 두려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으라. 그러면 그녀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누가복음 8:49, 50.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세레로 상징되는 부활이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권능 부여를 대표했던 그 방으로 들어간다. 변형산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증인이 된 두 번째 경우이다. 변형산은 둘째 천사에 해당하며, 그리스도께서 같은

제자들을 겿세마네로 데려가셨을 때 그것은 셋째 천사를 대표하였다. 둘째 단계인 변형산에서는 “이중화”가 있다. 이는 변형산이라는 이정표가 성부께서 말씀하신 세 번 가운데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그의 세례 때였고, 이는 열두 살 된 처녀의 부활과 상응하며, 둘째는 그 산이었고, 셋째는 십자가 직전이었다. 성부께서 말씀하신 세 차례와, 세 제자가 예수와 따로 동행한 세 차례는, 양쪽 계열 모두에서 둘째 이정표가 변형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서로 결속되어 있다.

그가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울며 그 소녀를 애곡하였으나, 그는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그들은 그 소녀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의 영이 다시 돌아와 곧 일어섰고, 그는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다. 그 소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누가복음 8:51-56.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나사로가 그러하였듯이 잠들어 있던 그 처녀의 부활 때 첫째 천사를 목격하였다. 그 처녀는 깨어나자 곧 일어나 양식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부활할 때, 그들은 곧 일어나고, 그 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니, 이는 그 처녀의 양식을 표상한다. 변화산 사건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 옛새 만에 있었으나, 누가의 기록에서는 예외이다.

이 말씀들을 하신 지 팔일쯤 지나,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가 기도하시는 동안 그의 용모가 변하고 그의 옷은 희어져 광채가 났다. 보라, 두 사람이 그와 더불어 말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누가복음 9:28-30.

마태와 마가는 모두 분명히 ‘옛새 후’라고 말하고, 누가는 ‘여드레쯤’이라고 말한다. 성경 저자들은 두 가지 시간 기산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포함적이고 다른 하나는 배제적이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으나, 누가가 ‘쯤’이라고 말한 사실은 그가 포함적 기산에 따라 말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마태와 마가가 ‘옛새 후’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이 여덟 날의 기간을 시작한 날이나 그 기간을 끝맺은 날은 제외하고 온전한 하루 단위만을 계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차이는 동일한 기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 수적 상징을 산출하는데, 하나는 숫자 여덟이고 다른 하나는 옛새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와 변모산에서의 6일 또는 8일의 기간에 관한 두 증언으로 입증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십사만 사천을 인치시는 시기에 숫자 8은 노아의 방주에 있던 여덟 영혼을 상징하고, 숫자 6은 빌라델비아의 여섯째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는 일곱에 속하되 여덟째 교회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의 영화의 때에 여덟째로 변화된다. 산에서의 영화는 또한 모세의 역사에서 산 위에서 이루어진 영화로 예표된다.

모세는 산에 오를 때 칠십 장로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

그 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갔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더라. 그의 발 아래에는 마치 청옥으로 포장한 듯한 바닥이

있었고, 그 청명함은 마치 하늘의 본체와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인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을 보았으며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산에 올라와 거기 있으라. 내가 돌판과 율법과 계명, 곧 내가 기록한 것을 네게 주리니, 네가 이것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장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누구든지 처리할 일이 있거든 그들에게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그 산을 덮었다. 여호와와 영광이 시나이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옛새 동안 그것을 덮었다. 이렛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와 영광의 모습이 삼키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고, 사십 주야 동안 그 산에 있었다. 출애굽기 24:9-18.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야이로의 딸의 부활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침례와 상응한다. 그로부터 옛새 후, 둘째 천사에 해당하는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셋째 천사에 해당하는 십자가로 이끌었다. 둘째 천사로서 변화산은 이중 증거를 지닌다. 곧 산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그 세 번 중 둘째 경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따로 데리고 가신 동행자가 된 세 차례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 차례, 이 둘 모두가 아버지의 음성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경우를 지목하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 번째로 데려가신 곳이 변화산이었다. 변화산의 둘째 이정표는 아버지의 음성과 세 제자라는 이중 증거를 지니는데, 이는 둘째 기별이 언제나 '중복'을 식별하기 때문이다.

저녁 제사와 아침 제사 사이의 여섯 시간의 기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산에 이르기까지의 옛새로 표상되며, 모세가 제칠일에 구름 속으로 부름을 받기까지의 옛새로 또한 표상된다.

그 선은 모세가 칠십 장로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라'고 명한 것과 같이, 둘째 천사의 지체 기간으로 시작된다. 그 선에서 처음의 여섯 날은 분리되어 있으나, 여전히 전체 사십육 일의 일부를 이룬다. 그 여섯 날은 사십 일로 표상되는 세 번째 시험으로 이어지는 기간이다. 사십육 일은 성전을 상징하며, 그 여섯 날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오순절까지의 여섯 시간, 그분의 십자가 처형에서 죽으심까지의 여섯 시간,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까지의 여섯 시간, 그리고 베드로의 다락방에서 성전까지의 여섯 시간이다. 모세는 언약의 율법을 받고,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화는 변화산에서의 영광화를 예표하였다. 둘 모두 여섯 날의 기간을 포함한다. 모세의 선은 둘째 천사의 지체 기간과 성전을 대표하는 온전한 사십육 일을 포함한다. 그가 율법을 받은 사십 일은 인침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제삼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고, 제구시에 가이사랴 마리티마로 가는 길이었으며, 옛새에서 여드레 만에 그는 산에 이르러 모세의 칠십 장로들과 함께 머무를

때 영광을 입으신 주의 환상을 보게 된다. 이는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과 같다. 다니엘은 주를 대면하여 보았고, 기드온과 칠십 장로들도 그러하였다. 변화산은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변화되는 곳이다. 그들은 여덟째 교회, 곧 여섯째 교회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새와 여드레를 본다.

십자가 처형에서 그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섯 시간, 오순절의 여섯 시간,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까지의 여섯 시간, 변모의 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섯 날, 그리고 사십 일로 이어진 모세의 여섯 날은 동일한 선상에 있다. 파니움이라 불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일요일 법령 사이에서,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다. 그 인침이 분리를 일으킨다.

오직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나니, 이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하였느니라. 다니엘 10:7.

모세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할 때 장로들과 분리되었다. 모세는 기다림의 때에 칠십 장로와 분리되었고, 칠십 이레는 옛 언약 백성을 위한 시한적 유예 기간을 상징한다. 제칠십 이레가 끝났을 때, 그리고 그 제칠십 이레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증하신 거룩한 이레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옛 언약 백성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옛 언약 백성이 그들의 혈루의 문제, 곧 그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났고, 열두 해 된 처녀가 섬기기 위하여 부활하였다. 기다림의 때가 시작되자, 모세는 언약의 율법과 성전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는 일과 그 후 그들을 기호로 높이 들어 세우시는 일은 그 언약 백성이 십사만 사천의 성전임을 표상한다. 그때 열한째 시의 일꾼들이 그 성전에 연합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임할 것이요,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굳게 붙드는 인생은 복이 있도다. 곧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지키며, 그의 손으로 어떤 악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자손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며, 고자도 이르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집과 내 성벽 안에서 그들에게 아들과 딸보다 나은 기념과 이름을 주리니,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또한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 하는 이방인의 자손들, 곧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열납될 것이라.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미 그에게로 모인 자들 외에도 다른 자들을 그에게로 더 모으리라. 이사야서 56:1-8.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미워하던 형제들에 의해 내쫓김을 당한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대표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건축하는 집이 어디 있느냐? 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내 손이 지었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생겨났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돌아보는 자는 이 사람이라,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요, 내 말에 떠는 자니라.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베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마치 우상을 축복하는 것과 같으니라. 참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나 또한 그들의 미혹을 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렀으되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였으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그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였으나, 그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사야 66:1-5.

"기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등장하며, "수치"라는 단어도 그렇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근거로 전한 메시지의 맥락에서, 수치와 기쁨의 대조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평행적 대비로 제시된다. 요엘의 맥락에서 수치와 기쁨은 기름, 곧 늦은 비의 기별을 소유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각각 대표한다. 이러한 세부를 볼 때에야 비로소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라는 말씀의 더 깊은 의미에 이르게 된다. 그 형제들이란, 스팔딩과 매건 1-2쪽에서 "유다와 같은 명목상의 재림교인들"로, "가톨릭에게 우리를 넘겨줄" 자들이며, "안식일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였으니 그것을 논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묘사된 바로 그 사람들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은 논박할 수 없는 땅의 안식일의 기별, 모세의 "일곱 번"에 관한 문제를 두고 너희를 쫓아낸다. 여기서 요점은, 이사야가 부르는 바 변론, 곧 교리적 논쟁 때문에 너희가 쫓겨난다는 것이며, 그 교리적 논쟁은 늦은 비의 기별이라는 점이다.

요엘은 그 기별을 "새 포도주"라고 부르며, 그 기별을 가진 자는 기쁨을 가진다. 그것이 없으면, 요엘의 술 취한 자들처럼 깨어나 새 포도주가 자기 입에서 끊어졌음을 알게 된다. 그때 예언적으로 "수치를 당한다." 기름을 가진 부류는 기쁨을 가지고, 기름이 없는 부류는 수치를 당한다. 그 기름은 또한 새 포도주이며, 그것은 기쁨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부류는 듣기를 택하고, 다른 부류는 나팔 소리에 청종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그의 말씀에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듣는 부류를 분명히 지칭한다. 주께서는 9/11에 임한 그 기별로 말미암아 내쫓김을 당한 자들을 모으시고, 일요일 법령 때에는 마른 나무로 상징되는 이사야의 환관들을 모으신다. 그들이 언약을 붙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될 것이다.

내시나 마른 나무는 죽음을 상징한다. 내시는 후손을 낳을 수 없고 마른 나무에는 생명이 없다. 약속은, 그 이방인들, 혹은 열한시 일꾼들이 안식일로 표상되는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먼저 그분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다음으로 그 쫓겨난 자들을 기호로 높이 드시며, 그 후에 그분의 다른 양 무리를 모으신다. 첫째 모으심과 둘째 모으심은, 성령께서 뿌리시는 때인 9/11로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과, 또한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미가엘이 일어서시며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표상한다. 두 기간 모두에서 늦은 비는 기별이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을 가져오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치를 가져온다.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나타내는 세 개의 선으로 구분된다. 세 개의 선 각각에도 세 천사의 프랙탈이 포함되어 있다. 11장부터 22장에 이르는 둘째 선은 중심에 위치한다. 이는 그것이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 사이에 자리한 둘째 천사이기 때문이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언약 장들의 맥락에서 11장부터 22장을 고려할 때, 마태복음 자체가 중심선이 된다.

열두 언약 장의 중심은 마태복음에 있으며, 마태복음의 세 줄의 가운데 줄도 동일한 그 열두 언약 장 안에서 발견된다. 그 열두 언약 장의 중심은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이다. 그 중심점은 세 구절로 제시되며, 이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열두 언약 장의 세 중심 구절과 상응한다.

베드로는 중심의 중심의 중심점이며, 그는 처음과 마지막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한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이다. 팔모니께서는 또한 베드로의 개명 위에 자신의 서명을 두셨는데, 곧 영어로 된 베드로의 이름의 수수께끼를 설계하실 때 그러하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고, 그 대화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영어로 옮겨졌다. 영어에서는 팔모니께서 영어 알파벳의 열여섯째 글자에 이어 다섯째 글자, 이어 스무째, 이어 다섯째, 이어 열여덟째 글자를 사용하여 베드로의 이름을 명명하셨는데, 그분이 팔모니로서 그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를 거쳐 영어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온전히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분은 또한 그 영어 이름이 그 다섯 글자의 값을 곱함으로써 십사만 사천이라는 수에 이르게 하는 수수께끼를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하셨다. 또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팔모니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루는 그 다섯 영어 글자 가운데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각각 열여섯째와 열여덟째 글자가 되게 설계하셨으니, 이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베드로에 관한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황금비'를 다루어야 한다. 황금비는 그 비율이 1.618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표상된다. 황금비는 자연의 프랙탈과 연관되어 있으며, 팔모니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를 지목할 때, 팔모니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놓인 예언적 열쇠와 그 구절에서 베드로와 교회에 주어진 예언적 열쇠들이 예언적 프랙탈을 포함하고 있음을 식별하고 있는 것이다.

제삼시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구시의 가이사랴 마리티마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삼시로부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도록 사람들을 보낸 제구시에 이르기까지의 프랙탈을 이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삼시로부터 오순절에 성전에서 베드로와 관련하여 언급된 제구시에 이르는 오순절기의 구간은, 십자가에서 고넬료에 이르는 1,260일의 프랙탈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 차례는 세 천사의 프랙탈이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신 세 차례도 그러하다. 베드로가 십사만 사천을 예시하는 구절들에 암호화되어 있는 예언적 정보는, 지금까지 어느 진리와의 견줄 만큼 심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다니엘 11장에서 파니움에 베드로를 위치시키지 못하였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께서, 그의 크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이르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크게 기뻐하나, 지금 잠시 동안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느니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비록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면밀히 탐구하였으니, 곧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를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그 영이 가리키신 바가 무엇이며 또 어느 때, 곧 어떠한 시기인지를 알아보려 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한 섬김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계시되었고, 이 일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해졌으니, 이것들은 천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열망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순종하는 자녀로서, 무지하던 때에 좇던 이전의 정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는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기서 나그네로 머무는 때를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전래된 헛된 행실에서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속량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참으로 세상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심을 받으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도록 너희 영혼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요,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곧 이것이 복음으로 너희에게 전파된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1-25.